

日, 불자 감소·재정 부족 극심... 돌파구는?

재팬뉴스, 인구 감소가 日불교에 미치는 영향 소개

전 세계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 일선에서는 고령화와 청년 불자 부족으로 인한 '신도 감소' 문제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본에서는 인구 감소가 불교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관련 내용을 책으로 출판해 눈길을 끈다.

일본 언론 'Japan News'는 최근 발간된 책 '인구가 감소하는 사회 속 사찰(Society with a declining population and temples, Hozokan 출판사 발간)'을 소개했다. 책에는 일본 내 지역 사찰들이 어떻게 재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또 사찰들이 인구감소 시대에 어떤 책임을 지는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종교사회학자 및 불교학자들과 관련 분야 학자들이 다수 공동 집필했다.

공동집필 겸 편집을 맡은 요시히데 사쿠라이(Yoshihide Sakurai) 훗카이도 대학 교수는 "몇몇의 종교 종파들의 동향과 관련한 통계를 있었지만, 현재 불교 사원들이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간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발간 이유를 설명했다.

오늘날 일본 사찰들은 신도 및 주지(住持)자들의 급감과 더불어 사찰을 승

계할 상좌(上佐) 스님마저 구하기 못해 재정·관리에 총체적 난국을 겪고 있다. 일본 내에 약 8만 개 사찰 가운데 관광객 및 신도들의 발이 끊어질 않는 유명사찰을 제외한 나머지 95%의 지역 사찰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사쿠라이 교수는 "심지어 유명 사찰들도 시주금으로 재정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부 소규모 사찰들은 주지 스님의 사비로 운영하기도 하지만 그

신도 수 급감, 재정적 운영 '고충' 95% 소규모 사찰 문제 더 심각 "주지 스님 자비 운영도 한계" 노인 돌봄 서비스 등 대안 제시

마저도 한계에 부딪혔다. 출산을 감소 등 요인들로 인해 종교의 가족 승계가 어려운 것이 그 이유"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쿠라이 교수는 "불자 감소 문제 극복을 위한 아이디어 고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서로 협력해 대비하지 않으면, 소규모 사찰들은 완전히 붕괴되고 말 것"이라 경고했다.

이와 관련 책 내용 일부에는 사찰 운



쇼코 미우라(Shokyo Miura) 스님이 도쿄에서 운영 중인 'Tera Cafe'에서 커피를 서빙하고 있다. 사진출처=japantoday

영의 새 방식에 대해 "지금이 바로 인구 감소에 대비, 사원의 역할을 수립할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사원들은 지역사회에서 어른들을 위한 커피를 제공하고, 독거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특화 분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일본 불교계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탈피하기 위해 스님들이 상담을 하며 차와 커피 등을 파는 카페를 열거나, 불교의 천도(天導)식을 장례(葬禮)와 연계해 재정충당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키타 현(秋田縣) 후지 사토 마을에 위치한 한 소규모 사찰은 마을 주민들에

게 '동정어린 귀', 즉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주지 스님은 이곳에서 식음료를 판매하는 한편, 위도가 필요한 고객들에게 상담을 해주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자살을 예방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종교가 지나치게 상업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Japan News'는 "종교가 재정 충당을 위해 하는 활동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 허브' 역할로 나아가면 주민들과 소규모 사찰들이 함께 상상하는 긍정적 방안이 될 것"이라 전했다.

"명상·토론 등 다양한 불교 즐기자"

美블루밍턴 불자들, 불교 열풍 속 다양한 신행생활

불교에 대한 관심 고조되며 신행 관련 다양한 수요 발생 철학·토론·명상·수행 등 '다채' "불교의 자유로움이 큰 매력"

서구에서 불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일이다. 미국만 보아도 참선 수행이나 위빠사나, 요가 수행을 하는 사람이 1,500만 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스스로를 불교도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약 600만 명 정도라고 한다.

미국 인터넷 언론 '인디애나퍼블릭미디어'는 4월 16일(현지시간) 미국 인디애나주 블루밍턴에 불교 있는 불교 열풍에 대해 조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블루밍턴에 거주하는 불자들은 여러 종류의 불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찰과 문화센터의 영향으로 다양한 신행활동을 누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티베트몽골불교문화센터는 명상을 비롯한 다양한 불교 강좌를 매주 열고 있으며, 2014년에 문을 연 '게이든 카초심 불교 수행 연구센터'는 정기적으로 불교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와 포럼을 개최하고 불교 유물 전시도 열고 있다.

'인디애나퍼블릭미디어'는 "블루밍턴에 이처럼 여러 종류의 불교문화 센터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불자들의 수요층이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어떤 사람들은 불교를 신앙으로, 어떤 사람은 하나의 철학으로 간주한다"고 보도했다.

특히 '인디애나퍼블릭미디어'는 대표적인 예로 브루스 허와 던 밀러 부부를 소개했다. 브루스는 불교를 신앙으로, 그의 부인인 던 밀러는 불교를 철학으로 공부해 왔다.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브루스는 성인이 되면서 불교를 접하기 시작했다. 그는 블루밍턴 불교센터의 수행 프로그램에 매주 참여하며, 꾸준히 명상을 하고 있다. 브루스는 "나는 불교를 수행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신앙적으로 생각

한다"며 "때문에 수행할 때는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그의 아내 던 밀러는 불교를 철학적으로 접근 한다. 밀러는 "나는 불교 강의를 듣고 불교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한다"며 "하지만 불교 의식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부부는 서로 다른 방식의 신행생활을 지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자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불교의 자율성이 미국인들을 불교로 이끌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릭 낸스 인디애나대학 남아시아불교학과 교수는 "달라이 라마를 추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진정한 종교인이라면 어떤 일이 중요한지 생각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다"며 "불교가 권위적인 모습보다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미국인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카든 카초심 불교문화센터의 잠양라마 스님은 "미국 불교는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생활 속 가르침을 주고 있다"며 "이에 서구인들은 불교적인 생각과 가르침, 철학에 매료되어 있으며 그 안에서 어떻게 행복과 평화를 찾는지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퓨 리서치'에 따르면 북미에서 불자 수는 2050년까지 250만 명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불자수가 줄어들 때 반대로 미국에서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다.

이에 대해 릭 낸스 교수는 "많은 젊은 이들은 더 이상 그들이 어렸을 때 믿었던 종교에 안주하지 않는다. 그들은 불교가 주는 유연성에 매료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만약 당신이 달라이 라마를 만난다면 그는 '당신은 불자가 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이 불교인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라'고 말할 것"이라며 "학생들은 이런 가르침을 통해 편안함을 느끼고 불자로서의 의무감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점에서 더 편하게 불교를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루스 허(사진 왼쪽)와 던 밀러 부부가 신행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 사진출처=인디애나퍼블릭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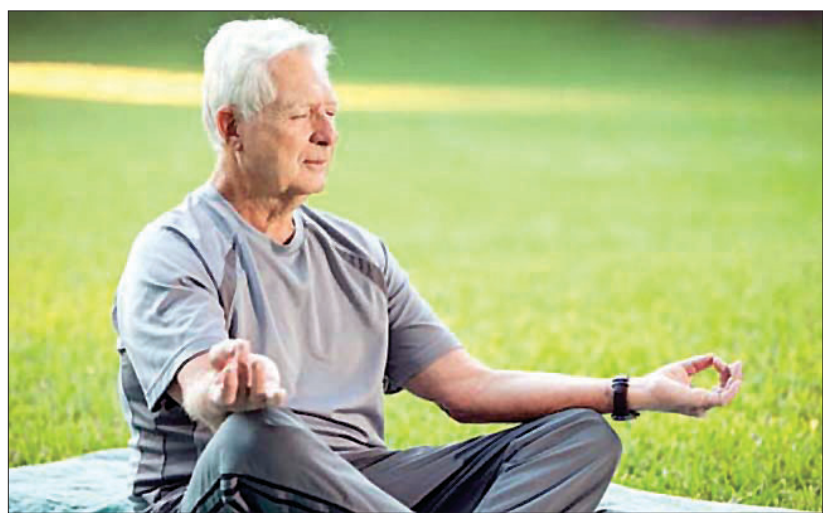
"멀티태스커 명상효과, 일반인보다 높아"

미국 위스콘신대 매디슨 캠퍼스 연구결과 '주목'

대부분의 사람들은 '멀티 태스커(multi-tasker; 한 사람이 한 대의 컴퓨터로 2가지 이상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거나,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실행시키는 것)'가 주의가 산만해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생각과는 달리 마음챙김명상을 통해 멀티 태스커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위스콘신대 매디슨 캠퍼스 연구원들은 "TV, 음악,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동시에 사용하는 '헤비 미디어 멀티 태스커 (heavy media multi-tasker)'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명상 후 주의력이 더 높아진다"고 밝혔다.

연구 논문의 저자인 토마스 골만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마음챙김 명상 후



동시에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는 '멀티 태스커'들이 명상 후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더 주의력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진출처=NDTV

집중력 테스트에서 더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며 "특히 헤비 미디어 멀티 태스커들은 한 번에 하나의 매체만 사용하는 '라이트 미디어 멀티 태스커' 보다 명상 후 집중력 테스트에서 더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2부류로 구성돼 이들 동안 집중도 테스트에 참여했다. 첫째 날 참가자들은 웹 서핑을 하는 중간에 집중도 테스트를 했으며, 둘째 날에는 10분 동안 호흡의 들숨·날숨을 새는 마음챙

김 연습을 한 뒤 집중도 테스트를 진행했다.

실험결과 첫째날에는 헤비 미디어 멀티태스커는 라이트 미디어 멀티태스커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호흡 연습을 하고 난 뒤에는 모두 향상된 점수를 받았다. 특히 헤비 미디어 멀티태스커 그룹은 마음챙김명상 후 진행된 집중도 테스트에서 월등히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번 연구는 "한 번에 여러 매체를 접하는 사람은 주의력이 낮아 순간에 집중할 수 없다"는 기존의 통념을 뒤엎는 것이라 주목할 만하다.

연구 논문에 공동 참여한 손 그린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에 많은 매체들을 처리 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한 번에 하나의 매체를 처리하는 것보다 집중을 분산 시킨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멀티태스킹에 능한 사람들이 명상 후에는 집중력이 더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관등놀이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 불기 2560(2016)년 부처님오신날 **형형色色 달구벌**

※ 차량통제 안내

4월 30일 토요일
19:30 ~ 23:00

두류공원네거리 ~ 두류네거리 ~ 반월당네거리 구간 교통통제 됩니다.

시민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연등회·연등행렬

4월 30일(토) 13:00 ~
두류공원 야구장 일대 및 달구벌대로

13:00 ~ · 문화공연
18:00 ~ · 연등회 법요식 및 소원풍등날리기
20:00 ~ · 연등행렬

· 축하공연

남상일 권미희

달구벌 관등놀이

5월 5일(수) ~ 8일(일) · 전야제 5월 4일 · 개막식 5월 5일 · 중동교 신천 둔치

장엄등(燈)전시

5월 5일 · 개막 점등식

백세인생 이애란

5월 7일 · 한빛댄스경연대회

달사벳 아이스

5월 6일 · 달구벌연등합창제

5월 8일 · 어버이날 '효(孝) 한마당'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공연합니다 · 연등틀고 다함께

※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사단법인 대구불교총연합회 TEL 053)623-6388 WEB www.gwandeung.or.kr FACEBOOK www.facebook.com/gwandeung